

제 1 장 창조주 하느님 [김동원](\*)

1 未生民來	미생민래	사람 아직 나기 전에
2 前有上帝	전유상제	이미 상제 계시오니
3 有一眞神	유일진신	오직 한 분 참 신이라
4 無聖能比	무성능비	비할 성인 없었도다
5 六日力作	육일역작	엿새 걸쳐 힘을 쏟아
6 先闢天地	선벽천지	하늘 땅을 여시오니
7 萬物多焉	만물다언	세상 만물 무수하고
8 既希且異	기희차이	기이하고 신기하다
9 遂力和土	수판화토	흙을 빚어 사람내고
10 捋爲靈矣	랄위영의	영혼 불어 넣으시며
11 食處賜臺	식처사대	삶의 터전 베푸시고
12 千百皆與	천백개여	천만 가지 다 주셨네
13 復使宜家	복사의가	인간 가정 이루도록
14 女兮往事	여혜왕사	한 여자를 보내시어
15 謂之曰夫	위지왈부	지아비라 부르리니
16 爾我如自	이아여자	너와 내가 한 몸이라
17 凡所求者	범소구자	갈구하는 모든 것이
18 毋不立豫	무불입예	제 뜻대로 안 되나니
19 然欲善惡	연욕선악	선악과를 탐내어서
20 勿聽手取	물청수취	금령 말씀 듣지 않네
21 告云可食	고운가식	먹으라는 유혹으로
22 或當見耳	혹당견이	보고 듣게 될까하여
23 聞言摩拿	문언마나	감언 듣고 손을 대니
24 得罪因此	득죄인차	이로 인해 죄지었네

右節記, 上主造物之多, 所以備人之用也.

우절기, 상주조물지다, 소이비인지용야.

人奈何犯其禁令而自取罪戾哉.

인내하범기금령이자취죄려재.

윗글은 상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어 사람들이 쓰도록 준비하여 주셨는데도, 사람이 어찌하여 그 금령을 어기고 스스로 죄와 허물을 취하였는가를 기록한 것이다.

(\*) 계시자 주: 각 장의 제목은 김동원 신부님께서 마련한 것이며, 그리고 이미 총 49개의 단락들 구분되어 전해오고 있는 “성교요지” 본문을,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성경 본문에서처럼, 49개의 장(章)들과 절(節)들로 구분한 것은 김동원 비오 신부님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

## 제 2 장 인간성: 카인과 노아

1 口傳亞伯	구전아백	아벨 전승 전하건대
2 羊祭信心	양제신심	신심으로 양 바치니
3 長子若兄	장자약형	말아들 형 되는 이가
4 敵殺及今	적살급금	그를 죽여 지금까지
5 以致彼族	이치피족	죄에 물든 저 족속들
6 但安利名	단안이명	부귀공명 안일하니
7 愛身尼色	애신니색	몸 아끼고 여색 빠져
8 列馬羅金	열마라금	세력 황금 내세웠네
9 父意非昔	부의비석	아버지 뜻 다르므로
10 其僕已明	기복이명	종에게 이를 밝히고
11 卽由是時	즉유시시	정해진 때 다다르자
12 大水四行	대수사행	대홍수가 사방 덮쳐
13 卷撒全死	권살전사	온갖 족속 몰사하니
14 何問儕群	하문제군	구원된 무리 묻건대
15 第歸方蓋	제귀방개	방안에 들어간 자들
16 則同義人	즉동의인	그들 바로 의인이라
17 居七從八	거칠종팔	가족 일곱 여덟 쌍이
18 各拉入門	각랍입문	각기 따라 들어갔네

右節記，世人之犯禁，墮惡殘殺，貪暴造孽日深，所以洪水橫行，

우절기, 세인지범금, 타악잔살, 탐폭조열일심, 소이홍수횡행,

上主實惡其污穢也。非有義人，則人類幾絕滅矣。

상주빈오기오예야, 비유의인, 즉인류기절멸의.

尼, 暱也. 僕謂, 挪亞也. 方蓋, 方舟也. 居入者, 挪亞卷屬共有入人,

니, 닐야. 복위, 나아야. 방개, 방주야. 거입자, 나아권속공유입인,

從八者, 所有携潔畜牝牡各八也.

종팔자, 소유휴결축빈모각팔야.

윗절은 세상 사람들이 상주의 금령을 범하여 악으로 빠져 들어가 잔인, 살상, 탐욕, 포악하여 죄를 짓는 일이 날로 깊어가므로 큰 홍수가 일어나 사방을 횡행하였는데 이는 상주께서 그 더러움을 미워하신 때문이었으며, 만약 이때 의인이 아니었다면 인류가 완전히 전멸하였을 것을 기록한 것이다.

니(尼)란 닐(暱)을 말하며, 종이란 노아를 말하고, 방개란 방주를 말한다. 거입자(居入者)란 노아와 함께 들어가서 거처하게 된 가족 일곱 명을 말하며, 종팔자(從八者)란 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깨끗한 짐승이 암수 여덟임을 말한다.

### 제 3 장 구세주 예수님

1 故又督教	고우독교	그러므로 기독교는
2 甚家世福	심가세복	복을 더해 주시고자
3 降下耶穌	강하야소	예수께서 강림하니
4 斯賓救主	사빈구주	구세주로 맞이하네
5 等間于三	등간우삼	삼위일체 거하시며
6 倫出於五	윤출어오	오륜으로 머무시고
7 華年至展	화년지전	성전에서 봉헌하여
8 在會受書	재회수서	회중 앞에 성경 받네
9 相約衆士	상약중사	선비들과 언약 맺고
10 必知理數	필지리수	이치 도리 모름 없어
11 節禮守法	절례수법	예절 법도 지키시며
12 司十二徒	사십이도	열두 사도 거느렸네
13 冷邊城邑	냉변성읍	예루살렘 성읍에서
14 巴米道路	파미도로	파미도로 거쳐가니
15 猶太國也	유태국야	온 유대를 다니시며
16 西乃山乎	서내산호	시나이산 이르렀네
17 王而溫雅	왕이온아	하늘나라 왕의 온유
18 後章昭諸	후장소제	다음에서 밝히리라

右節記, 上主降救之故, 蓋深憫世人迷於惡途不能自救,

우절기, 상주강구지고, 개심민세인미어악도불능자구,

故特降下愛子爲萬世之救主也.

고특강하애자위만세지구주야.

等間于三者, 耶穌在三位之中居於第二也.

등간우삼자, 야소재삼위지중거어제이야.

倫出於五者, 耶穌雖爲神子而出世誕育於人也.

윤출어오자, 야소수위신자이출세탄육어인야.

윗글은 상주께서 예수님을 강생하게 하시어 인류를 구제하신 까닭을 기록한 것이다. 대개 세인이 악의 길에 빠져 허덕이며 제 스스로 구제하지 못함을 가련하게 보시고 특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 보내시고 세상 만세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등간우삼(等間于三)이란 예수님께서 천주 삼위 가운데 제이위에 계심을 뜻하고 윤출어오(倫出於五)란 예수님께서 비록 하느님의 아들이나 세상에 나와 인간으로 탄생하시어 양육되었음을 뜻한다.

## 제 4 장 구속주 예수님

1 親營皮幕	친영피막	몸의 장막 마련하사
2 赦過拯逃	사과증도	용서로써 구원하고
3 蒙選代贖	몽선대속	어리석음 속량하니
4 聲稱益高	성칭익고	명성 칭송 높아가네
5 備歷苦難	비력고난	온갖 고난 겪으시며
6 顯成功勞	현성공로	높은 공로 이루시니
7 追闕本初	추결본초	모든 사물 근본 따라
8 垂訓汝曹	수훈여조	가르침을 본받으세

右節總冒下文，此章之綱領也.

우절총모하문, 차장지강령야.

幕, 喻身也. 見彼得後書.

막, 유신야. 견피득후서.

윗절은 다음 글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 장의 강령이다.

막(幕)은 몸을 비유한 것이다. 베드로 후서를 보라.

## 제 5 장 예수님의 가족

1 母氏瑟妻	모씨슬처	어머니는 요셉 아내
2 少小待字	소소대자	혼인날을 기다리매
3 蓮容素端	연용소단	연꽃처럼 단아하고
4 蘭性較細	난성교세	난초같이 고우셨네
5 會緣夢感	회연몽감	꿈의 감도 인연 만나
6 忽產男嗣	홀산남사	홀연 사내 아기 낳고
7 東界友師	동계우사	동방 세계 박사들이
8 軍光詳視	군광상시	별빛 따라 찾아와서
9 造室辱臨	조실욕림	누추한 곳 나신 분께
10 伏拜依次	복배의차	엎드려서 문안했네

右節記, 耶穌出世之初, 天即垂象而先顯示於人也.

우절기, 야소출세지초, 천즉수상이선현시어인야.

軍光星光也.

군광성광야.

윗절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 징표를 내리시어 먼저 사람에게 현시하심을 기록한 것이다.

군광은 곧 별빛이다.

## 제 6 장 예수님의 주위 상황

1 后皇最忍	후황최인	헤로데왕 잔혹하여
2 按戶戮刑	안호육형	집 뒤지며 살육하자
3 擲負投遠	나부투원	아기 업고 도망쳐서
4 避境藏形	피경장형	국경 너머 몸 숨겼네
5 迨君卒沒	태군졸몰	임금 결국 죽은 뒤에
6 率眷返止	솔권반지	가족 함께 돌아오니
7 仍恐勒召	잉공럭소	강제 소출 두려워서
8 夜深脫去	야심탈거	깊은 밤에 피하였네
9 畜老革荒	축로혁황	짐승 늙어 가죽 남고
10 龍現首舉	용현수거	용과 같이 머리 높여
11 免歟幸哉	면여행재	재앙 피한 이 분은
12 原靡終始	원미종시	본래 시작 끝도 없네

右節記, 耶穌嬰時遭害備極苦難, 而始得安全也.

우절기, 야소영시조해비극고난, 이시득안전야.

荒, 空也. 畜老則毛脫, 而皮空喻希律既髦而行惡也. 龍, 謂耶穌也.

황, 공야. 축노즉모탈, 이피공유희울기모이행악야. 용, 위야소야.

윗절은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박해를 만나 온갖 고난을 다 겪은 뒤에 비로소 안전을 얻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황(荒)은 빈 것이니, 짐승이 늙으면 털이 빠져 가죽이 비게 된다. 이것은 머리 빠진 늙은이의 악행을 비유한 것이다. 용(龍)은 예수님을 말한다.

## 제 7 장 예수님의 영세

1 向野翰呼	향야한호	광야에서 외치기를
2 悔改務切	회개무절	회개하여 악 끊으라
3 就洗河旁	취세하방	예수님은 세례 받고
4 循儀莫越	순의막월	의식 좇아 어김없네
5 譬樹結果	비수결과	나무 비유 말씀하니
6 適口維悅	적구유열	제 열매를 내야 하되
7 否悉刃斷	부실인단	쭝정이는 잘라내어
8 便付焚烈	편부분열	불에 던져 태우리라

右節記, 耶穌受洗之事.

우절기, 야소수세지사.

河, 約但河也. 越, 過也.

하, 약단하야. 월, 과야.

윗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하(河)는 요르단 강을 가리키며 월(越)은 지나침, 과오를 뜻한다.

## 제 8 장 예수님의 시험

1 嘗遇魔試	상우마시	전에 악마 시험 만나
2 指餅爭遺	지병쟁유	빵 가리켜 유혹하며
3 押登宮屋	압등궁옥	성전 위에 세워 놓고
4 崇垣被携	송원피휴	높은 곳에 끌고 가서
5 并令俯望	병령부망	엎드려서 명 받들면
6 尊英强施	존영강시	높은 존경 베풀리라
7 修德圖報	수덕도보	보상 위해 덕 닦으면
8 正直兩虛	정직양허	정직함도 헛되거늘
9 奉諭遵遺	봉유준유	보내신 분 뜻 받드니
10 烏敢惑余	오감혹여	네가 어찌 유혹하리

右節記, 耶穌見視之日爲魔所逼, 而守正不阿, 故魔卒離之而去也.  
우절기, 야소견시지일위마소핍, 이수정불아, 고마졸이지이거야.

윗절은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시던 날 악마가 핍박을 하나 올바름을 지키고 아첨하지 아니하므로 악마가 곧 떠나 물러감을 기록한 것이다.



## 제 9 장 예수님의 선교

1 乘驢歡樂	승려환락	나귀 타고 다니시며
2 總集智愚	총집지우	현자 우자 모으시고
3 條誠張布	조계장포	교리 계울 펼치시니
4 宰治屬吾	재치속오	하늘 나라 내게 있네
5 攻擊違逆	공격위역	교만한 자 물리치고
6 常聚俊英	상취준영	여러 인물 모으시니
7 旨斥氣責	지척기책	안일 혈기 책하시며
8 隱暗畢陣	은암필진	감추인 것 드러나네
9 患遭獄陷	환조옥함	투옥됨을 근심하여
10 謀亡沙洲	모망사주	사마리아 피하시나
11 統轄的裔	통할적예	백성들을 통괄하여
12 征途遍周	정도편주	여러 마을 포교하네
13 花嫩易敗	화눈이패	꽃은 쉽게 떨어져도
14 麥掃定留	맥소정류	보리알은 싹을 내고
15 類及鳥獸	류급조수	새와 짐승 무리들은
16 穀養弗愚	곡양불우	곡식 걱정 하지 않네
17 失懼災絕	실구재절	재난 공포 사라지나
18 好甲亂俱	호갑란구	싸우기를 좋아하며
19 仇怒所據	구노소거	미움 분노 있는 곳에
20 兵奪車驅	병탈거구	전쟁 약탈 휩쓸리라
21 孰忘足畏	숙망족외	누가 공포 잊겠는가
22 頓害體魂	돈해체혼	영혼 육체 해치나니
23 該恃庇釋	해시비석	사람들아 현자 믿어
24 藉謝恩仁	자사은인	사랑 은혜 감사하세

右節記, 耶穌宣道之時, 多言譬喻以教人也.

우절기, 야소선도지시, 다언비유이교인야.

獄, 訟也. 悖教者謀訟, 耶穌避去也.

옥, 송야. 패교자모송, 야소피거야.

的裔, 以色列之民也. 嫩, 嬌好之類也. 好甲, 猶好兵也.

적예, 이색열지민야. 눈, 교호지류야. 호갑, 유희병야.

윗절은 예수님께서 선교하실 때에 많은 말씀과 비유로써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옥(獄)은 송사를 말한다. 가르침을 거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송사를 꾀했으나 예수님께서 이를 피하신 것이다.

적예(的裔)란 이스라엘 백성이고 눈(嫩)은 어여쁜 것을 말한다. 호갑(好甲)은 오히려 싸우기 좋아함을 말한다.

## 제 10 장 예수님의 가르침

1 學別派支	학별파지	가르침 널리 퍼져
2 埃田許置	애전허치	세상 곳곳 자리 잡고
3 敬妄良分	경망양분	공경 망녕 분별하여
4 詛禁祝極	저금축극	악 금하고 선 축복해
5 海于哥弟	해우가제	해변에서 만난 형제
6 棄業速起	기업속기	생업 떠나 일어나서
7 履武請隨	리무청수	예수 추종 청하오며
8 願離鄉里	원이향리	고향 이별 원했다네
9 目紀矜恤	목기궁휼	자비함을 기강으로
10 志陽讚美	지양찬미	뜻을 높여 찬미하고
11 默記祈文	묵기기문	기도문을 묵상하며
12 通達古史	통달고사	고대 사기 통달했네
13 邦都省京	방도성경	여러 지방 예루살렘
14 南北半經	남북반경	남북으로 여행길에
15 每念僭僞	매념참위	높은 자리 탐내는 자
16 化導平情	화도평정	평화롭게 인도했네
17 燔牲割肉	번모할육	짐승 번제 할손례는
18 舊例雖存	구례수존	구약 전례 예식이나
19 羔牛特犢	고우특독	양과 소의 제사만이
20 錫獻豈欣	석헌기흔	어찌 주님 기쁘리오
21 私籲公禱	사유공도	개인 축원 공동 기도
22 葡萄飲傾	포도음경	포도주를 함께 들고
23 開堂誠勸	개당성권	정성으로 권면하며
24 引證宣音	인증선음	복음 말씀 증거했네

右節記, 耶穌立教之正, 改舊禮而用新禮也.

우절기, 야소입교지정, 개구레이용신례야.

武, 足跡也. 割, 肉割禮也.

무, 족적야. 할, 육할례야.

윗절은 예수님께서 교를 세우심에 구약의 전례를 고쳐 새로운 전례를 쓰심이다.

무(武)는 발자취이고 할(割)은 할손례를 말한다.

## 제 11 장 예수님의 업적

1 著語貴喻	저어귀유	비유 말씀 알려지고
2 奇略更接	기략경접	기적 또한 따르나니
3 顧種牧傷	고종목상	모든 종족 목자로서
4 夕朝歲月	석조세월	아침 저녁 보내시네
5 鬼逐病醫	귀축병의	마귀 쫓고 병자 고쳐
6 汚解禍滅	오해화멸	오물 씻고 재앙 멸해
7 葬墓寢興	장묘침흥	무덤 시체 일으키고
8 捫衣婦潔	문의부결	옷깃 만진 부인 낫네
9 詣船波面	예선파면	파도 걸어 배에 올라
10 息風舟底	식풍주저	풍랑 없애 배 구하고
11 愈疾環觀	유질환관	온갖 병자 낫게 하며
12 活喪待喜	활상대희	기쁨 중에 소생하네
13 助罕賴他	조한뢰타	불신자는 돕지 않고
14 審判咸己	심판함기	모든 심판 그에 속해
15 罰犯廣援	벌범광원	벌보다는 구원 펴니
16 重權獨任	중권독임	중한 권한 그에 있네
17 固保盛盈	고보성영	정성 가득 굳게 지켜
18 恒懷恭順	항회공순	공순함을 간직하고
19 外暴內懲	외폭내건	외부 폭력 내면 허물
20 庶幾戰勝	서기전승	어려움에 승리하네

右節記, 耶穌行奇之多, 所以表其權能也.

우절기, 야소행기지다, 소이표기권능야.

種, 種類. 牧, 喻耶穌也.

종, 종류. 목, 유아소야.

윗절은 예수님께서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권능을 나타내심을 기록한 것이다.

종(種)은 종류를 말하고, 목(牧)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다.

## 제 12 장 예언의 성취

1 散編賽設	산편새설	이사야 예언서에
2 錄久兆伊	녹구조이	옛적부터 전하기를
3 毀宇再建	훼우재건	무너진 집 일으키라
4 預計末期	예계말기	말세 시기 예언했네
5 廢園吉壤	폐원길양	황폐한 곳 비옥하니
6 頌對誰欺	송대수기	서로 읊고 대답하며
7 街歌谷應	가가곡응	곳곳에서 노래하니
8 俾讓九思	비양구사	구사에 필적하네

右節記, 耶穌預言之確, 即可信其無所不知矣.

우절기, 야소예언지확, 즉가신기무소부지의.

賽, 以賽亞古之預言者也. 末期, 末日也.

새, 이새야고지예언자야. 말기, 말일야.

九思, 君子之成德, 見論語引之以譽耶穌也.

구사, 군자지성덕, 견론어인지이에야소야.

윗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한즉 그 모르시는 바가 없음을 가히 믿으라 한 것이다.

새(賽)는 이사야로서 옛 예언자이며 말기(末期)는 말일이다.

구사(九思)는 군자의 덕을 닦는 길로서 <論語>를 인용하여 예수님의 덕을 찬미한 것이다.

\*九思(論語, 季氏 十)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아홉 가지 생각하는 일이 있느니라. 보는 데는 명백하기를 생각하고, 듣는 데는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하고, 얼굴은 부드럽게 하기를 생각하고, 모양은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은 성실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일에는 조심하기를 생각하고, 의심나는 것에는 묻기를 생각하고, 분이 날 적에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느니라”(孔子曰,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 제 13 장 최후의 만찬

1 工役貧富	공역빈부	일꾼 관리 빈자 부자
2 左右近交	좌우근교	친근하게 사귀오며
3 餘論尤服	여론우복	주님 말씀 복종하는
4 班旅盡招	반여진초	모든 사람 부르셨네
5 動偕新娶	동해신취	신부 함께 동반하여
6 香供酒邀	향공주요	향과 술을 준비하고
7 執油膏坐	집유고좌	촛불 켜고 옆에 앉아
8 流血憫號	유혈민호	거룩하신 피라 하네

右節記, 耶穌臨終之慘, 皆所以救萬世之人也.

우절기, 야소임종지참, 개소이구만세지인야.

윗절은 예수님 임종의 비참함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구속하신 까닭을 기록한 것이다.

## 제 14 장 예수님의 최후

1 慧雨慈雲	혜우자운	자혜로운 비와 구름
2 震角播示	진각파시	주님 권능 진동하며
3 背架築壇	배가축단	십자가의 제단 쌓고
4 納匱載器	납궤재기	계약의 궤 채우셨네
5 察貨度銀	찰화도은	바친 재물 함께 모아
6 赤白用給	적백용급	필요 따라 나눠 쓰며
7 提要發綱	제요발강	인륜 강령 드높이고
8 合享永位	합향영위	영원무궁 제사하네
9 宗姓單微	종성단미	씨족들이 비천하되
10 祖孫答述	조손답술	대대손손 응답하며
11 共獲濟進	공획제진	공동생활 구제하니
12 誓乏哀哭	서핍애곡	근심걱정 애통 없네
13 偶像阿回	우상아회	세상 우상 하나같이
14 銅鐵石木	동철석목	목석 동철 허무하니
15 創識破淫	창식파음	정도로써 음사 깨고
16 尙議變俗	상의변속	속된 풍속 변화하네

右節記, 說教勸世之切, 言耶穌既已捨身爲人以救萬世,  
 우절기, 설교권세지절, 언야소기이사신위인이구만세,  
 人自當心悅誠服, 盡基分以待審判,  
 인자당심열성복, 진기분이대심판,  
 奈何崇事偶像而不變, 易夫風俗哉.  
 내하송사우상이불변, 역부풍속재.  
 角, 菰也. 匱, 耶和華之約匱. 淫, 淫祀也.  
 각, 고야. 궤, 야화화지약궤. 음, 음사야.

윗절은 예수님께서서 세상을 권면하는 간절한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당신 몸을 희생하셨으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속 기쁘게 정성을 바쳐 신앙하며, 誠에 복종하여 그 본분을 다한 뒤 심판을 기다릴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그 풍습을 바꾸지 아니하는가?

각(角)은 피리이고, 궤(匱)는 야훼의 약속하신 궤이며, 음(淫)은 음사이다.

## 제 15 장 예수님의 부활

1 啓穴屍甦	계혈시소	무덤 열고 소생하여
2 凌空升昇	능공승여	공중으로 승천하니
3 寶座或憑	보좌혹빙	장엄하게 착좌하여
4 訟詞迫具	송사박구	최후 심판 마련하네
5 辜咎疑輕	고구의경	작은 죄와 벌이라도
6 雪冤艱巨	설원간거	죄는 풀기 어려우니
7 覺味醒迷	각미성미	어리석음 깨우치고
8 陰府抵拒	음부저거	어둠 세력 물리치세

右節言，耶穌升天之後，萬事皆待之而鞫也。

우절언, 야소승천지후, 만사개대지이국야.

凌, 騰也. 昇, 與舉同. 疑, 擬也. 與尙書罪疑惟輕同義.

릉, 등야. 여, 여거동. 의, 의야. 여상서죄의유경동의.

윗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만사를 기다려 죄를 심판하러 오심을 말한 것이다.

릉(凌)은 날아오름을 말하고, 여(昇)는 ‘마주들다’라는 뜻이고, 의(疑)는 의(擬)로서 <尙書>에 있는 ‘죄가 의심스러우면 오직 벌을 가볍이 하다’(罪疑惟輕)와 같은 뜻이다.

## 제 16 장 수신(修身)

1 量才託授	양재탁수	재능따라 소임 주고
2 衛翼扶持	위익부지	도를 닦아 보호하며
3 詔戒誘誨	조계유회	가르치고 깨우쳐서
4 晝晚鑑茲	주만감자	밤낮으로 밝히도다
5 兒輩誨誦	아배구송	아이들은 글을 읽고
6 賦擇詩稽	부택시계	부와 시를 탐구하며
7 齒牙申講	치아신강	나이 따라 배움으로
8 遐邇均推	하이균추	도가 두루 퍼지리라

右節言，人當勤學以求正道也.

우절언, 인당근학이구정도야.

稽, 考求也.

계, 고구야.

윗절은 사람이 마땅히 正道를 구하여 배워야 함을 말한다.

계(稽)는 이치를 살핌을 뜻한다.



## 제 17 장 어린이

1 爰監嬰孩	원감영해	갓난 아이 살피건대
2 胎元誕育	태원탄육	태어나서 기를 때에
3 急乳泣饑	급유읍기	배고프면 젓먹이고
4 席臥綿束	석와면속	솜에 싸서 뉘어주네
5 秉質淸聰	병질청총	맑은 성품 기르려면
6 概除雜欲	개제잡욕	모든 잡욕 떨어내고
7 夙譴洪沾	숙견홍침	깊은 원죄 씻기 위해
8 盥早濯沐	합조탁목	일찍 세례 받을지라

右節言，人初生之時，惡孽未萌，惟早當洗滌耳。

우절언, 인초생지시, 악열미맹, 유조당세척이.

欲, 私欲. 夙譴, 原罪也. 洪, 大也. 濯沐, 洗禮也.

욕, 사욕. 숙견, 원죄야. 홍, 대야. 탁목, 세례야.

윗절은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에 사악한 죄악이 아직 싹트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원죄를 씻어야 함을 말한다.

욕(欲)은 사욕(私慾)이요, 숙견(夙譴)은 원죄(原罪)이며 홍(洪)은 크다는 뜻이고, 탁목(濯沐)은 세례이다.

## 제 18 장 청년

1 幼丁漸壯	유정점장	어린이가 장성하며
2 習染殊童	습염수동	죄악에도 물드나니
3 詭謙襲貌	괘겸습모	거짓 겸손 정성 덮고
4 駭笑匿衷	해소닉중	겉웃음은 속 감추네
5 克伐驕縱	극벌교종	교만 방종 못 막으면
6 窘抑困窮	군억곤궁	곤궁함에 떨어져서
7 倘憾墮落	당감타락	타락됨을 한탄하니
8 機術奚庸	기술해용	어찌 구원 모르는가

右節言，人外齒既長，習染漸深，易墮惡途，故當謹防而求救者。

우절언, 인외치기장, 습염점심, 이타악도, 고당근방이구구자.

詭, 詐也. 駭, 驚也. 飾外爲襲, 中藏爲匿. 克, 能也. 伐, 誇大.

괘, 사야. 해, 경야. 식외위습, 중장위닉. 극, 능야. 벌, 과대.

縱, 放肆. 窘抑, 窘迫. 而屈, 抑也. 憾, 恨也. 機, 機變. 術, 權術.

종, 방사. 군억, 군박. 이굴, 억야. 감, 한야. 기, 기변. 술, 권술.

庸, 用也.

용, 용야.

윗절은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죄악에 깊이 물들어 악의 길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마땅히 행실을 삼가고 죄를 방지하며 구원할 자를 찾아야 함을 말한다.

괘(詭)는 간사하고 속임을 말하며, 해(駭)는 놀라고 두려움이다. 외모를 꾸미는 것을 습(襲)이라 하고 안에 깊이 감추는 것을 닉(匿)이라 한다. 극(克)은 능히 할 수 있음이요, 벌(伐)은 과대함이며, 종(縱)은 방종이다. 군억(窘抑)은 꺾박하고 억누름이며 감(憾)은 한탄이고 기(機)는 변화의 계기이며 술(術)은 힘과 기술이며 용(庸)은 사용한다는 뜻이다.

## 제 19 장 선비

1 博嗜簡篇	박기간편	도박 즐겨 책 멀리해
2 几筵勤讀	귀연근독	부지런히 읽을진대
3 琴劍遊遊	금검천유	비파와 칼 좋아하며
4 專侮愼篤	전문신독	성실한 이 모멸하네
5 尸爵曠官	시작광관	썩은 벼슬 허세부려
6 貪祐祀佛	탐우사불	복 탐내어 불사공경
7 口法喇口塞朋 <sup>1)</sup>	법리새붕	바리사이 무리들은
8 輪傾 <sup>2)</sup> 鑿覆	륜경감복	뒤집어져 멸망하리

右節, 讀書之人, 琴劍遊遊任情妄作,  
우절, 독서지인, 금검오유임정망작,  
苟不求慕正道, 則永爲罪人矣.  
구불구모정도, 즉영위죄인의.

嗜, 好也. 侮, 慢也. 愼篤, 誠篤之人也. 在官不盡基職曰, 尸爵.  
기, 호야. 모, 만야. 신독, 성독지인야. 임관부진기직알, 시작.

曠, 虛也. 祐, 福也.  
광, 허야. 우, 복야.

윗절은 책을 읽는 선비가 비파와 칼놀이만 즐기고 감정 내키는 대로 망녕되이 행동하여 올바른 도리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죄인이 된다는 말이다.

기(嗜)는 좋아함이며 모(侮)는 모독하는 것이고, 신독(愼篤)은 성실하고 돈독한 사람을 말한다. 관직에 있으면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함을 시작(尸爵)이라 한다. 광(曠)은 헛된 것이며 우(祐)는 복이다.

1) : 須(모름지기수)로 볼 수도 있다.

2) 이성배 신부는 이벽 성조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조선 시대의 선비들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풍자하여 口法喇口塞朋 앞에 입 구(口)자를 넣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제 20 장 농부

1 泥塗奔走	이도분주	진흙창을 오가면서
2 竊認農耕	절인농경	농사일에 힘쓰나니
3 澤灌烟植	택관연식	논물대고 씨 뿌리며
4 抹露踐塵	말로천진	부지런히 일 하도다
5 郊場收積	교장수적	추수하여 뜰에 쌓고
6 繼蹟厚豊	계적후풍	애쓴 보람 풍성하니
7 疇想寅鞠	주상인국	최후 심판 묵상하여
8 曲跪虔尋	곡궤건심	무릎 꿇고 경건하라

右節, 農家者流, 三時辛苦, 希冀豊收,  
 우절, 농가자류, 삼시신고, 희기풍수,  
 苟不求慕正道, 則永爲罪人矣.  
 구불구모정도, 즉영위죄인의.

以水沃田曰, 灌. 植, 種也. 抹, 摸也. 寅, 敬惕. 鞠, 審判.  
 이수옥전왈, 관. 식, 종야. 말, 모야. 인, 경척. 국, 심판.

윗절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에 갖가지 고초를 겪으며 농사짓고 풍성히 거두어들이기를 바라지만 正道를 사모하여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죄인이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물을 대어 밭을 비옥하게 함을 관(灌)이라고 한다. 식(植)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말(抹)은 더듬는 것이며, 인(寅)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며, 국(鞠)은 심판이다.

## 제 21 장 공인

1 操尺運斤	조척운근	자로 재고 도끼 깎아
2 係誇傑步	계과걸보	걸작 솜씨 자랑하네
3 弓矢皿料	궁시명료	활과 화살 온갖 기명
4 精粗製鑄	정조제주	정밀하게 만들도다
5 酬值竭償	수치갈상	값을 따져 흥정하고
6 泉刀還互	천도환호	수고 따라 돈 받으니
7 苟悟了休	구오료휴	일을 하나 하면서도
8 連番趨赴	연번추부	끊임없이 道를 닦세

右節, 工匠之儔, 鉤心鬪角, 作爲奇巧, 苟不求慕正道, 則永爲罪人矣.

우절, 공장지주, 구심투각, 작위기교, 구불구모정도, 즉영위죄인의.

斤, 斧也. 泉刀, 錢也.

근, 부야. 천도, 전야.

윗절은 공장의 무리들이 비록 지붕이나 투각을 기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지라도 진실로 바른 도를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인이 됨을 기록한 것이다.

근(斤)은 도끼이며 천도(泉刀)는 돈을 말한다.

## 제 22 장 상인

1 市隅井際	시우정제	저자 거리 우물가에
2 買賣客商	매매객상	사고 파는 행상들은
3 却迎巖島	각영암도	평탄하고 험한 길과
4 坦坳江洋	탄가강양	강과 바다 오고가며
5 倍億典掌	배억전장	억만금을 손 쥐어도
6 貢稅殷繁	공세은번	세금 공물 바쳐대고
7 錢滿慮攘	전만려양	돈 쌓이면 도둑 걱정
8 駐庫穹蒼	주고궁창	하늘 나라 쌓을지라

右節，行商居賈，跋涉山川，權營子母，  
 우절, 행상거고, 발섭산천, 권영자모,  
 苟不求慕正道，則永爲罪人矣。  
 구불구모정도, 즉영위죄인의.  
 却, 退也. 迎, 進也. 坦, 平路. 坳, 險途.  
 각, 퇴야. 영, 진야. 탄, 평로. 가, 험도.

윗글은 상인들이 산과 물을 건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영리를 도모하지만 진실로 정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인이 됨을 기록한 것이다.

각(却)은 물러남이요, 영(迎)은 나아감이며, 탄(坦)은 평탄한 길이요, 가(坳)는 험한 길이다.

## 제 23 장 제가(齊家)

1 嘉戚看承	가척간승	가족친척 서로 돕고
2 昆玉姊妹	곤옥자매	형제자매 곤옥 같이
3 純孝爺權	순효야환	부모 공경 효도하며
4 卑弱佑惠	비약우혜	약자에게 은혜주네
5 刻薄肇衰	각박조쇠	각박함이 사라지고
6 憐惜奴婢	연석노비	아랫사람 동정하며
7 普護根源	보호근원	인간 근원 보호하여
8 康寧允慰	강령윤위	기쁨 평화 위로받네

右節，一室之內，和氣致祥，能如此者，其孝友誠可嘉矣.

우절, 일실지내, 화기치상, 능여차자, 기효우성가가의.

戚,眷屬也. 昆玉,兄弟也.

척, 권속야. 곤옥, 형제야.

윗글은 한 집안 안에 화락한 기운과 상서로운 기운이 돌기를 능히 이같이 하면, 그 효성과 우애로 誠의 아름다움을 가히 이루리라는 것이다.

척(戚)은 가족을 말하며 곤옥(昆玉)은 형제를 말한다.

## 제 24 장 치국(治國)

1 卜賢徵哲	복현징철	현명한 자 불러들여
2 荷政輸忠	하정수충	정사 맡겨 충성하니
3 俘叛禦盜	부반어도	반역 막고 도둑 놀려
4 驗印頒封	험인반봉	공로 따라 벼슬 주네
5 賓吏阻蔽	빈리조폐	관리들이 은폐해도
6 黷詰藐躬	흔힐묘궁	틈 없애고 선행으로
7 俟駕奏職	사가주직	임금 명령 직책 다해
8 曷厭寬宏	갈염관굉	공적 세워 무궁하리

右節，任君之事，鞠躬盡瘁，能如此者，其忠盡誠可嘉矣。

우절, 임군지사, 국궁진취, 능여차자, 기충진성가가의.

卜, 救卜. 徵, 聘也. 賓幕中之客. 吏, 書役也. 黷, 隙也.

복, 구복. 징, 빙야. 빈막중지객. 리, 서역야. 흔, 극야.

藐躬, 藐小之躬, 自喻也. 俟, 主之駕. 奏職, 盡己之分.

묘궁, 묘소지궁, 자유야. 사, 주지가. 주직, 진기지분.

윗글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그 몸을 다하고 수고로움을 다함에 능히 이같이 한다면 그 충성심이 가히 誠의 아름다움을 이루리라는 것이다.

복(卜)은 선발하고 구함이며 징(徵)은 부르고 초빙함이다. 빈(賓)은 막료와 비장이며, 리(吏)는 아전을 말한다. 흔은 틈을 말한다. 묘궁(藐躬)은 묘소지궁이니 스스로를 비유함이다. 사(俟)는 임금의 명령을 기다림이며 주직(奏職)은 자기 직분을 다함이다.



제 25 장 평천하(平天下)

1 崗磬晨屆	강반신계	새벽부터 산 오르고
2 湖漢星遷	호한성천	밤새우며 바다 건너
3 延嘏藥送	연하약송	병자에게 약 보내고
4 需饑糧捐	수기량연	식량 풀어 구제하니
5 偏側陸奠	편측육전	무너진 곳 복돋우고
6 圯壞岸堅	이괴안견	기운 쪽을 세우거늘
7 那肯鬪隙	나금투극	어찌하여 혈뜬으며
8 蕪穢侵牽	무예침견	더러움에 빠지는가

右節，爲善之人不存歧視，能如此者，其慈惠誠可嘉矣。

우절, 위선지인부존기시, 능여차자, 기자혜성가가의.

崗磬, 山之高者. 湖漢, 水之廣者. 嘏, 壽也. 送藥以却病, 則壽可延.

강반, 산지고자, 호한, 수지광자. 하, 수야. 송약이각병, 즉수가연.

需, 急也. 捐糧以急饑, 則荒可濟. 偏側, 物將壞而不正也. 蕪, 汚也.

수, 급야. 연량이급기, 즉황가제. 편측, 물장괴이부정야. 무, 오야.

윗글은 선을 베푸는 사람은 사물을 비뚤게 보지 않으니, 능히 이같이 선을 행한다면 그 자비와 은혜가 誠의 아름다움을 가히 이루리라는 것이다.

강반(崗磬)은 높은 산을, 호한(湖漢)은 넓은 물을 뜻한다. 하(嘏)는 수(壽)인데 약을 보내 병을 고치면 가히 오래 살 수 있다. 수(需)는 급함이다. 식량을 풀어 기아를 구제한다면 가히 흉년을 구제할 수 있다. 편(偏)하면 사물이 장차 무너지고 바르지 못한 것이다. 무(蕪)란 더러움이다.

## 제 26 장 성(誠)

1 謹恪密盟	근각밀맹	신앙 굳게 맹세하면
2 譽賞似赫	예상사혁	보상 영예 빛나리라
3 轉眼崩蕘	전안붕홍	죽음으로 눈 돌리면
4 驚靚幽黑	경도유흑	암흑보고 경악하리
5 戾綱橫罹	여강횡리	죄인들은 화를 입고
6 昌衢閉塞	창구폐색	넓은 길도 막혀 버려
7 抱恨沈淪	포한침륜	한을 품고 몰락하니
8 況兼殘賊	황겸잔적	흉악한 자 어찌하랴

右節, 此三等人, 能盡其分, 誠合於正道矣.

우절, 차삼등인, 능진기분, 성합어정도의.

惟不求慕正道, 則不能自救其靈魂.

유불구모정도, 즉불능자구기령혼.

密盟, 盟之於心也. 赫, 顯赫也. 橫罹, 無辜而蹈禍也.

밀맹, 맹지어심야. 혁, 현혁야. 횡리, 무고이도화야.

沈淪, 陷溺也. 殘賊, 凶暴之人也.

침륜, 함닉야. 잔적, 흥포지인야.

윗글은 이미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정성을 극진히 함으로써 정도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올바른 도리를 사모하여 구하지 않는다면 능히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밀맹(密盟)은 마음에 굳게 맹세함이며 혁(赫)은 빛나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횡리(橫罹)는 무고하게 화를 입는 것이며, 침륜(沈淪)은 빠져 밑바닥에 가라앉음을 말한다. 잔적(殘賊)은 흥포한 사람이다.

제 27 장 원수

1 邪黨毒蛇	사당독사	독사같이 악한 무리
2 頷部吞噬	영부탄서	서로 물고 뜯어대며
3 舌蜜售甘	설밀수감	감언이설 속여대고
4 燬虜倚勢	훼로의세	권세 기대 아부하네
5 嫁怨仗威	가원장위	한 품고 위세 떨면
6 鳴鼓暮季	명고모계	종말 최후 심판 받고
7 濱退崙逾	빈퇴륜유	지옥으로 내쫓기니
8 奈寡頂替	내과정체	어찌 道를 모르는가

右節, 今之邪黨橫行, 荼毒善類, 至末日之審判, 耶穌必討其罪也.  
 우절, 금지사당횡행, 차독선류, 지말일지심판, 야소필토기죄야.  
 部, 黨類也. 售, 甘言以誘人也. 鳴鼓, 聲其罪也. 暮季, 末世也.  
 부, 당류야. 수, 감언이유인야. 명고, 성기죄야. 모계, 말세야.  
 濱, 水之涯也, 崙山之進善退惡, 皆己自主, 無預替者也.  
 빈, 수지애야, 륜산지진선퇴악, 개기자주, 무예체자야.

윗글은 요즘 세상에 사악한 무리들이 횡행하여 착한 사람들을 해치는데, 이들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성토하실 것을 말한다  
 부(部)는 당파의 무리들이며, 수(售)는 감언이설로 사람을 꾀이는 것이다. 명고(鳴鼓)는 그 죄를 성토하는 것이며 모계(暮季)는 말세이다. 빈(濱)은 물가이며 륜(崙)은 산을 말한다. 선에 나아가고 악을 물리침은 모두 제 스스로 주관할 일이지 남에게 의지할 일이 아니다.

## 제 28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1 板柱瓦塔	판주와탑	기이하게 높은 집은
2 僅彰樣制	근창양제	양식 제도 자랑하듯
3 帶繫怕懸	대계파현	몸에 매단 장식품은
4 零珍表飾	영진표식	겉모양만 꾸몄다네
5 狂犬虐鄰	광견학린	광견 기린 학대하듯
6 剛忿姑遜	강분고손	강자 약자 누르지만
7 放膽裸腹	방담나복	교만하게 속 드러내
8 毛髮謗刺	모발방자	치부 보여 웃음 사네
9 房舍樓臺	방사누대	층층으로 높은 집도
10 只堪住宿	지감주숙	다만 한때 머물 따름
11 牲駝犀象	생타서상	소 낙타 물소 코끼리
12 禽閃獅突	금섬사돌	수리 사자 용맹하나
13 移磨蘇蟲	이마소충	사라지는 하루살이
14 燃燈照瞽	연등조고	등불 보는 소경이니
15 忙愧錯差	망괴착차	지난 잘못 뉘우치고
16 仰慕觀附	양모관부	하느님을 공경하세

右節，借譬以喻，耶穌之道，人人皆當遵行，

우절, 차비이유, 야소지도, 인인개당준행,

不可若無靈之物，不思得救也.

불가약무령지물, 불사득구야.

塔, 高屋也. 放, 縱也. 裸, 露也. 閃突, 形狀怪異也. 蘇, 活也.

탑, 고옥야. 방, 종야. 나, 노야. 섬돌, 형상괴이야. 소, 활야.

윗글은 비유를 빌려서 예수님의 도리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모두 이것을 마땅히 준행할 것이며 영혼이 없는 미물과 같이 구원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탑(塔)은 높은 집을 말하며 방(放)은 방종함이다. 나(裸)는 노출이며 섬(閃)과 돌(突)은 형상의 괴이함을 말한 것이다. 소(蘇)는 활기 있는 것이다.

## 제 29 장 그리스도를 본받음

1 屢億釘痛	누억정통	수난 고통 생각하니
2 竟殲戈鋒	경섬과봉	결국 창에 찔리시고
3 棘冠頭戴	극관두대	머리에는 가시관을
4 袍片搖紅	포편요홍	홍포 쓰고 모욕 받네
5 翦枝撻打	전지달타	사정없이 매를 맞고
6 渴擬鹽充	갈의염충	타는 갈증 식초 들며
7 腓骨慢折	비골만절	옆구리 뼈 부러지나
8 寵壽旋增	총수선증	은총 생명 더욱 컸네
9 嚴防假酵	엄방가효	거짓 누룩 엄금하고
10 暫辭慄杯	잠사을배	고통의 잔 사양하며
11 鸞鴿遁院 <sup>1)</sup>	육영둔원	제자들은 도망가니
12 捕魚射圍	포어사위	사로잡힌 고기 같네
13 囊綻麻補	낭탄마보	낡은 자루 삼베 깎고
14 菓咒葉肥	과주엽비	열매 없음 저주하며
15 索騎橄欖	색기감람	나귀타고 감람 지나
16 到郇 <sup>2)</sup> 吹管	도순취관	순나라에 이르셨네

右節，常憶耶穌受害之酷，升天之榮而稽其生平之言行，  
우절, 상억야소수해지혹, 승천지영이계기생평지언행,  
固在在可堅信心也.  
고재재가견신심야.

被害而死曰，殲。腓骨，脛骨也。遁，避去也。

피해이사왈, 섬. 비골, 경골야. 둔, 피거야.

射圍，矢魚之戲，見春秋隱公傳。橄欖，山名。管吹，吹菰也。

사위, 시어지희, 견춘추은공전. 감람, 산명. 관취, 취고야.

橄

윗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혹독한 수난과 하늘에 오르신 영광을 항상 생각하며 또 생전의 말  
씀과 행동을 평생 교훈으로 삼아 지키면 가히 그 신심을 굳게 가져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받아 죽는 것을 섬(殲)이라고 한다. 비골(腓骨)은 종아리뼈, 둔(遁)은 피해서 자취를 감  
춘 것이다. 사위(射圍)는 고기를 작살로 찌는 놀이이니, 춘추(春秋)의 은공전(隱公傳)을 보라.  
감람(橄欖)은 산 이름이며 취관(吹管)는 피리를 분다는 뜻이다.

1) 鸞鴿遁院 : 鸞팔육, 죽죽. 鸞鴿은 할미새를 의미.

2) 郇(땅이름순) 文王이 도착했을 때에 환호하며 영접했던 고사.

주(周)의 나라이름(현재 산서성 원의현)

## 제 30 장 선교사

1 振枯援單	진고원단	시든 풀잎 소생하고
2 宥勇伸囚	유용신수	죄인들을 용서하며
3 苗系齊魯	묘계제로	제와 노의 자손같이
4 品格呂歐	품격여구	여상 구양수 품격 심고
5 朔夏盤踞	삭하반도	북쪽에서 중화까지
6 核斗辨州	핵두변주	북두칠성 방향 잡아
7 暨寒迄熱	기한흘열	추위 더위 안 가리고
8 曳杖緯球	예장위구	세상 곳곳 전도하네

右節, 此言傳道之教師, 伸設耶穌之道, 險阻不辭, 寒暑不問, 卽, 차연전도지교사, 신설야소지도, 험조불사, 한서불문, 固欲普救世人, 同享永福也. 振, 起落也. 勇, 猛於悔改者也. 高岳보구세인, 동향영복야. 진, 기낙야. 용, 맹어회개자야. 囚, 知罪而未伸也. 苗系, 猶苗裔也. 呂, 呂尙, 歐, 歐陽修, 能文善武者也. 수, 지죄이미신야. 묘계, 유묘예야. 여, 여상, 구, 구양수, 능문선무자야. 極北曰, 朔. 中華曰, 夏. 斗, 北斗, 夜行不知所向, 則鑒北斗以辨之. 극북알, 삭. 중화알, 하. 두, 북두, 야행부지소향, 즉감북두이변지. 緯, 象緯, 天之度也. 球, 地球, 地之體也. 위, 상위, 천지도야. 구, 지구, 지지체야.

윗글은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교할 때에 험한 고생도 사양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도 가리지 않으며 오직 멀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니 이는 모두가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말한 것이다.

진(振)은 떨어진 것을 일으킴이요, 용(勇)은 죄를 회개함에 용감한 자이다. 수(囚)는 죄를 알고 서로 뉘우치지 않음이며 묘계(苗系)는 묘족의 후손들이다. 여(呂)는 여상이요 구(歐)는 구양수로 글을 잘하고 무예에 뛰어났다. 먼 북쪽을 삭(朔)이라 하고 중화를 하(夏)라 한다. 두(斗)는 북두칠성, 밤에 길을 가다가 방향을 모르면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판단한다. 위(緯)는 하늘의 위도이고 구(球)는 지구로서 땅의 본체이다.

## 제 31 장 자연의 호교론

1 緬迹朔勳	면적삭훈	창조 업적 살펴보고
2 儘鮮缺漏	진선결루	빠짐없이 다 밝혀서
3 擲畀某壽	척비모주	너희에게 일러주니
4 褰裳參叩	건상참고	마음 바쳐 공부하라
5 楷模秘探	해모비탐	창조 신비 탐구하여
6 煩劇暢茂	번극창무	가르침이 번성하면
7 殆冀曠聾	태기귀롱	소경이나 귀머거리
8 僉懺誤謬	첨참오류	모든 사람 참회하리

右節，鑒上主創造之迹，以啓世人誠信之心。承上章以起下文也。

우절, 감상주창조지적. 이계세인성신지심. 승상장이기하문야.

迹, 迹象. 勳, 功勞. 楷模, 制之有定者也. 煩劇, 繁多也.

적, 적상. 훈, 공노. 해모, 제지유정자야. 번극, 번다야.

冀, 望也. 懺, 悔也.

기, 망야. 참, 회야.

윗글은 상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흔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마음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이 절은 앞 절을 이어받으며 이 다음의 구절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적(迹)은 자취와 형상이며 훈(勳)은 공로이다. 해모(楷模)는 창조의 원리이며 번극(煩劇)은 번성하고 많은 것이다. 기(冀)는 바람이며 참(懺)은 뉘우침이다.

## 제 32 장 하늘

1 晴嵐繚繞	청람료요	맑은 기운 요요하고
2 瞻矚層霄	첨촉층소	층층 하늘 우러르니
3 霞輝林豔	하휘임염	노을 광채 물들이고
4 霓彩渡消	예채도소	무지개가 섰다 지네
5 迅雷奮響	신뢰분향	천둥 번개 뒤흔들고
6 疎霜催涸	소상최조	서리 낙엽 재촉하네
7 暘暉旱潦	양음한료	햇살 장마 가뭄 흉수
8 竚覲變調	저적변조	모든 변화 주님 보세

右節，就天之可見者，以驗上主之功有如此。

우절, 취천지가견자, 이험상주지공유여차.

嵐，天之氣也。繚繞，廻環也。迅，疾也。久晴曰，暘。久雨曰，霪。

람, 천지기야. 료요, 회환야. 신, 질야. 구청왈, 양. 구우왈, 음.

不雨而災，爲旱。多雨而災，爲潦。變，和變。調，調理。

불우이재, 위한. 다우이재, 위료. 변, 화변. 조, 조리.

윗절은 하늘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하느님의 업적이 이와 같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람(嵐)은 하늘의 기운이며 료요(繚繞)는 둘러침이다. 신(迅)은 빠른 것이며 날이 맑게 갠 것은 양(暘)이라 하고 비가 오래 내리는 것은 음(霪)이라 한다. 비가 오지 않는 재난은 가뭄(旱)이며 비가 많은 재난은 장마(潦)이다. 변(變)은 변화하는 것이며 조(調)는 조화의 이치이다.



### 제 33 장 땅

1 攷究寰區	고구환구	광대한 땅 살펴보면
2 長短闊狹	장단활협	길고 짧고 광활 협착
3 凸凹崎嶇	철요기구	높고 낮고 깊고 험한
4 幽燕崖峽	유연애협	고요 그윽 벼랑 계곡
5 悞崎徑抄	오기경초	갈림길과 지름길에
6 併程塹劃	병정참획	강과 동굴 가로질러
7 濶疆拓與	탕강적여	넓고 넓은 경계 안에
8 蠻貊包刮	만맥포괄	모든 인간 포용하네

右節, 就地之廣大者, 以驗上主之功有如此.

우절, 취지지광대자, 이험상주지공유여차.

攷, 考同. 究, 察也. 寰區, 四海之內. 高出, 爲凸, 低下, 爲凹.

고, 고동. 구, 찰야. 환구, 사해지내. 고출, 위철, 저하, 위요.

崎嶇, 路不平也. 塹, 坑也. 疆爲天塹.

기구, 로불평야. 참, 갱야. 강위천참.

윗절은 광대한 땅 위에서 상주의 공적을 징험하심이 이와 같음을 말한다.

고(攷)는 고(考)와 같고 구(究)는 살핀다는 뜻이다. 환구(寰區)는 사해(四海)이며, 높이 솟은 것을 철(凸), 낮게 패인 것을 요(凹)라 한다. 기구(崎嶇)는 길이 평탄하지 않은 것이며, 참(塹)은 갱(坑)으로, 강(疆)이란 하늘이 만든 참호이다.

## 제 34 장 시간

1 辯辰訝午	변진아오	새벽은 어느새 한낮
2 驟閱春秋	취열춘추	봄과 가을 금세 가네
3 雙丸躑躅	쌍환척족	해와 달은 제자리나
4 晷逝影浮	귀서영부	날은 가고 밤이 오네
5 靜占晏曉	정점안효	맑은 새벽 보는 사이
6 熾燄爍疏	치염삭류	끓는 불꽃 유향 녹듯
7 璣衡驗山	기형험산	시간 재도 세월 가니
8 忽遽躊躇	총거저주	영복 찾기 주저 말라

右節，時序運行不息，少縱即歷春秋，人宜知光陰之忽促，  
우절, 시서운행불식, 소종즉역춘추, 인의지광음지총족,  
而急求永福也.

이급구영복야.

雙丸，日月也。躑躅，行貌。熾燄爍疏，喻時過之速也。

쌍환, 일월야. 척족, 행모. 치염삭류, 유시과지속야.

璣衡，璇璣玉衡，所以占測者也。忽遽，促迫也。躊躇，猶豫不決之貌。

기형, 선기옥형, 소이점측자야. 총거, 촉박야. 저주, 유예불결지모.

윗절은 시간과 계절의 운행이 조금도 쉬지 않아 봄 가을이 뒤미처 지나가니, 사람은 마땅히  
광음의 빠름을 알아 시급히 하느님의 영복을 구할 것을 말한다.

쌍환(雙丸)은 해와 달을 말하며 척족(躑躅)은 제자리 걷는 모양이다. 치염삭류(熾燄爍疏)는 세  
월의 빠름을 비유한 것이다. 기형(璣衡)은 선기옥형으로서 시간을 재는 고대의 관측기구이다.  
총거(忽遽)는 촉박함이며, 저주(躊躇)는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 제 35 장 산천

1 岱嶽嶽嶽	대악금역	우람하게 솟은 태산
2 渭川迢遞	위천초체	아득히 흐르는 위수
3 鑿險覓津	착험먹진	험로 뚫고 나루 찾아
4 陟涉攀躋	척섭반제	산 오르고 물 건너네
5 嶂翠排螺	장취배라	소라처럼 펼친 산맥
6 潮黃駛驥	조황사기	밀려오는 바다 조수
7 玄幻巧臻	현환교진	현묘함에 눈 미치면
8 佳玩攸寄	가완유기	주님 신비 놀라워라

右節，山川之奇幻，具見匠心，人當推上主之功能，  
 우절, 산천지기환, 구견장심, 인당추상주지공능,  
 勿徒羨佳玩之寄也.

물도선가완지기야.

岱嶽, 泰山名山之宗也. 嶽嶽, 聳立貌. 渭, 水名. 迢遞, 闊也.

대악, 태산명산지종야, 금역, 용립모. 위, 수명. 초체, 활야.

登山曰, 陟. 履水曰, 涉. 排螺, 言諸山排列如螺也.

등산왈, 척. 이수왈, 섭. 배라, 언제산배열여라야.

駛驥, 潮來迅急, 如驥之駛也. 臻, 至也.

사기, 조래신급, 여기지사야. 진, 지야.

윗절은 산천의 기묘묘한 모습을 보며 그 만든 사람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마땅히 상  
 주의 뛰어난 업적을 추리하되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여 지상 보화에만 매혹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대악(岱嶽)은 태산의 다른 이름이며 산의 으뜸이다. 금역(嶽嶽)은 산이 용립한 모양이고, 위  
 (渭)는 물 이름이며, 초체(迢遞)는 멀고 광활함이다. 산에 오르는 것을 척(陟)이라 하고 물을  
 건넌을 섭(涉)이라 한다. 배라(排螺)는 많은 산의 배열됨이 소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사기(駛  
 驥)는 조수의 왕래와 빠르고 급함이 마치 천리마가 달리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진(臻)은  
 이른다는 뜻이다.

## 제 36 장 인간

1 髻僮者耆	초동기구	젊은이와 늙은이들
2 倜儻俠豪	척당협호	기개 있는 사람들을
3 遴薦勵獎	린천여장	천거 권장하는 사람
4 諂傲譏嘲	첨오기조	아첨 오만하는 사람
5 顛預伶俐	만안령리	어리석음 영리함과
6 縷晰膚毫	루석부호	모발 피부를 헤치고
7 胞胚配締	포배배체	그 뱃속에 품은 것이
8 妙奧頗饒	묘오파요	오묘하고 신비롭다

右節，上主生人，靈蠢不一，而締造苦心，實有奧妙，非人之所能測也。

우절, 상주생인, 영준불일, 이체조고심, 실유오묘, 비인지소능측야.

倜儻, 卓立也. 遴, 選也. 薦, 進也. 順人而阿附曰, 諂.

척당, 탁립야. 린, 선야. 천, 진야. 순인이아부왈, 첨.

凌人而蔑視之曰, 傲. 微諷以刺人曰, 譏. 曲言以笑人曰, 嘲.

릉인이멸시지왈, 오. 미풍이자인왈, 기. 곡언이소인왈, 조.

顛, 言愚蠢之人, 辦事無眉目也. 縷, 細絲也. 晰, 分也. 締, 造也.

안, 언우준지인, 판사무미목야. 루, 세사야. 석, 분야. 체, 조야.

饒, 多也.

요, 다야.

윗절은 상주께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영리하고 우준함이 한결같지 않으나 그 창조하신 고심과 오묘함이 있으니 이는 인간이 능히 측량하지 못할 바임을 말한다.

척당(倜儻)은 뛰어난이며 인(遴)은 선발이고, 천(薦)은 나아감의 뜻이다. 남에게 순종하며 아첨하는 것을 첨(諂)이라 하고, 남을 능멸하는 것을 오(傲)라 한다. 남을 약간 풍자하는 것을 기(譏)라 하며, 남을 비웃음을 조(嘲)라 한다. 안(顛)은 어리석은 사람이 사물을 판별할 때에 요령이 없음을 말하고 루(縷)는 가는 실을 말한다. 석(晰)은 분석이며 체(締)는 만든다는 뜻이고 요(饒)는 많음을 말한다.

## 제 37 장 집

1 畫榭雕廊	화사조랑	그림 같은 정자 회랑
2 複堦夾牖	복계협유	두 줄 섬돌 좌우 들창
3 斐檻聯絃	비함련면	빛나는 난간 이어지고
4 綺窗輻輳	기창폭주	비단 창틀 아름답네
5 齋塾序庠	재숙서상	재실 서숙 글방 있고
6 廩廚廁廐	늬주측구	쌀광 부엌 변소 마구간
7 衍慶迓休	연경아휴	잔치 위해 깨끗하되
8 恥玷楣構	치점미구	한 점 티가 부끄럽네

右節, 宮室華美承門祚者, 猶恥玷汚人, 柰何不求心之清潔哉.

우절, 궁실화미승문조자, 유치점오인, 내하불구심지청결재.

複, 重也. 聯絃, 連接不斷也. 輻輳, 聚集也. 衍, 延, 迓, 延也.

복, 중야. 연면, 연접부단야. 폭주, 취집야. 연, 연, 아, 연야.

休, 吉祥也. 玷, 汚也. 楣, 門. 楣構, 堂構.

휴, 길상야. 점, 오야. 미, 문. 미구, 당구.

윗절은 아름답고 화려한 궁실이라도 문 안에 들어서면서 티를 지니고 있다면 부끄러워하는데 어찌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구하지 않을까 함이다.

복(複)은 겹이며 연면(聯絃)은 연접하여 끊임이 없음을 말한다. 폭주(輻輳)는 한 곳에 모여 있음이며, 연(衍)은 아름답다는 뜻이다. 아(迓)도 아름답다는 뜻이다. 휴(休)는 길한 것이며, 점(玷)은 더러움이다. 미(楣)는 문이고 미구(楣構)는 집의 구조이다.

## 제 38 장 옷

1 葛裘絺綌	갈구치격	여름 베옷 겨울 갓옷
2 簪珥鐸環	잠이탁환	비녀 고리 팔찌 걸고
3 綿披繡佩	면피수패	비단 걸쳐 치장하니
4 燦爛輝煌	찬란휘황	눈부시게 찬란하네
5 衒耀襟袖	현요금수	비단 옷깃 자랑하며
6 掩映副鑲	엄영부양	장식물로 몸 감싸고
7 耄齡限促	모령한촉	죽어가는 끝날까지
8 遑戀裝潢	황련장황	외모 장식 연연하네

右節，服飾僅美外觀，救靈必享永福，何以戀在外之裝潢，  
우절, 복식근미외관, 구령필향영복, 하이연재외지장황,  
而不急在內之寶貴乎.  
이불급재내지보귀호.

윗절은 복식이란 겨우 외관만을 아름답게 할 뿐, 영복을 누리려면 영혼을 구제해야 하는데도 어찌하여 외모의 장식에만 연연하고 내면의 귀한 보배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를 말한 것이다.

## 제 39 장 도구

1 覈觚評材	핵고평재	재료 찾아 품평하여
2 借資佐輔	차자좌보	쓰기 좋게 만들었네
3 睡眠榻床	수면탑상	잠자기에 좋은 평상
4 饗飧匕筋	옹손비근	먹기 좋은 숟가락
5 揮塵挽韉	휘진만강	고삐 때려 말 달리고
6 吮筆裁楮	연필재저	글씨 쓰고 종이 잘라
7 妥貯穩儲	타저온저	각종 기구 장만하듯
8 般件臚署	반건려서	주님 도구 될지어다

右節, 人造器物以適己用, 何不修德爲主上之重器哉.

우절, 인조기물이적기용, 하불수덕위주상지중기재.

覈, 驗也. 觚, 器之有稜者也. 塵, 拂塵也. 楮, 紙也, 臚署, 次序也.

핵, 험야. 고, 기지유릉자야. 진, 불진야. 저, 지야. 려서, 차서야.

윗절은 사람이 기물을 자기 쓰기에 알맞게 만들 줄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상주의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덕을 닦지 않는가를 말한 것이다.

핵(覈)은 살피고 실험하는 것이며 고(觚)는 그릇의 모, 진(塵)은 먼지를 털는 것, 저(楮)는 종이, 여서(臚署)는 차서다.

## 제 40 장 보물

1 寸珠咫璧	촌주지벽	크고 작은 진주 벽옥
2 青衍丹瑚	청연단호	푸른 비취 붉은 산호
3 洛鐘泗磬	낙종사경	낙양 동종 사천 경쇠
4 秦鼎唐鑪	진정당로	진의 동정 당의 향로
5 王林瑯瓏玕	임랑호구	밝은 벽옥 검은 호박
6 瑪瑙砮砮	마노무부	옥색 마노 옥돌 무부
7 崢嶸璀璨	쟁영최찬	휘황찬란 보석들은
8 韞孕含娛	온잉함오	아름다움 감추었네

右節, 珍奇之物, 猶聖道也. 珍奇秘於庫藏, 聖道寓於人心,  
 우절, 진기지물, 유성도야. 진기비어고장, 성도우어인심,  
 숨孕韞藏, 尙其永寶.  
 함잉온장, 상기영보.  
 八寸曰, 咫. 洛鐘, 銅鐘之寶貴者. 泗磬, 石磬之能浮者.  
 팔촌알, 지. 락종, 동종지보귀자. 사경, 석경지능부자.

王林瑯瓏玕, 美玉之名. 瑪瑙砮砮, 皆寶石也. 崢嶸, 高峻貌.  
 임랑호구, 미옥지명. 마노무부, 개보석야. 쟁영, 고준모.  
 璀璨, 玉光也. 韞, 藏也.  
 최찬, 옥광야. 온, 장야.

윗절은 진기한 보물들이 聖道와 같은 것임을 말한다. 진기한 보물은 창고에 비장하지만 마음 안에 깃들이는 聖道는 오히려 영원한 보배로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여덟 치를 지(咫)라 한다. 낙양의 종은 구리로 된 종중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고 사천의 경쇠는 경쇠 중에서 뜰 수 있는 것이다. 임랑호구(王林瑯瓏玕)는 아름다운 옥의 이름이고, 마노무부(瑪瑙砮砮)도 다 보석들이다. 쟁영(崢嶸)은 산 높고 험준한 모양, 최찬(璀璨)은 옥의 빛깔, 온(韞)은 감춘다는 뜻이다.



## 제 41 장 음악

1 嘯竹彈絲	허죽탄사	통소 불고 현금 타며
2 簫韶拊拍	소소부박	장단 맞춰 흥 돋우니
3 逸韻鏗鏘	일운갱장	빠어난 운 고운 화음
4 淋鈴裂帛	임령열백	방울소리 노랫소리
5 湍激峯廻	단격봉회	물결소리 산 메아리
6 霆轟電掣	정굉전체	우렁차고 힘차도다
7 賡詠翕諧	갱영흡해	시를 읊어 조화되니
8 濫竽羞測	남우수측	부끄러움 모르도다

右節，音迭奏宮商克諧，不知樂者，不能和聲也.

우절, 음질주궁상극해, 부지락자, 불능화성야.

聖教廣播遠近交孚，不知道者，不能行善也.

성교광파원근교부, 부지도자, 불능행선야.

簫韶，古樂名. 拊，撫同. 鏗鏘，樂之節奏. 淋鈴，曲名.

소소, 고악명. 부, 무동. 갱장, 락지절주. 임령, 곡명.

裂帛，樂聲也. 湍激，水流之疾. 峯廻，山勢之紆，譬樂聲之徐速也.

열백, 악성야. 단격, 수류지질. 봉회, 산세지우, 비악성지서속야.

濫竽，有竽之名，而不能吹者也.

남우, 유우지명, 이불능취자야.

윗절은 음악이 궁상각치우의 오음이 화음을 이루는 데서 나오니, 음악을 모르는 자는 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다. 이와 같이 성교가 널리 전파되어 원근 사람들은 서로 믿지만 道를 알지 못하는 자는 능히 善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소(簫韶)는 옛 음악 이름. 부(拊)는 무(撫)와 같고, 갱장(鏗鏘)은 음악의 가락이다. 임령(淋鈴)은 곡명이고, 열백(裂帛)은 노랫소리이다. 단격(湍激)은 물의 흐름이 빠른 것이고, 봉회(峯廻)는 산세가 얽혀 도는 것으로 노랫소리의 빠르고 느림을 비유한다. 남우(濫竽)는 생황은 있으나 능히 불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 남우(濫竽)는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척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서, 제나라의 선왕(宣王)이 우(竽, 큰 생황)를 좋아하여 악사 300명을 불러 우(竽)를 불게 했을 때 남곽(南郭)이라는 사람이 우(竽)를 불 줄 모르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끼어 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갔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 제 42 장 꽃과 나무

1 脂妍粉媚	지연분미	연지 짙고 분 바른 듯
2 秀麗崑鍾	수려단종	수려 단정 고운 꽃들
3 黛痕楊柳	대흔양유	미인 머리 능수버들
4 綠蔭梧桐	녹음오동	녹음 짙은 오동나무
5 桃李競暖	도리경난	배 복숭아 봄 다투고
6 松柏耐冬	송백내동	겨울 내내 푸른 송백
7 趁候釀景	진후양경	계절따라 고운 경치
8 苑囿酣融	원유감융	온누리가 화합하네

右節, 花木秀於一時, 上主猶界以景色, 衆人生於一世,  
우절, 화목수어일시, 상주유계이경색, 중인생어일세,  
上主更望其復新. 酣, 暢也.  
상주경망기복신. 감, 창야.

윗절은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도 한때가 있나니 상주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못사람의 생명도 한 세상이나 상주께서는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즐겁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감(酣)은 창(暢)이다.

## 제 43 장 채소

1 飽飫芳馨	포어방형	좋은 나물 배부르니
2 蓺畝蓄菜	예묘축채	밭 일구어 채소 얻고
3 剖瓜採薇	부과채미	오이 따고 고사리 캐
4 煮葵拾芥	자규습개	아욱국을 끓여 먹네
5 掇擷鬱芬	철힐울분	향기 나물 다듬어서
6 咀嚼彌快	저작미쾌	씹을수록 참 맛나니
7 胡羨腥羶	호선성전	비린 고기 안 부럽고
8 饌肴侈泰	찬효치태	좋은 반찬 풍성하네

右節, 蔬菜爲天地之正味, 足以衛生而悅口,

우절, 소채위천지지정미, 족이위생이열구,

不必更求腥羶, 徒侈肴饌之盛猶之.

불필경구성전, 도치효찬지성유지.

聖教爲古今正道, 足以滅罪而救靈, 不必妄拜他神, 徒尙偶像之多.

성교위고금정도, 족이멸죄이구령, 불필망배타신, 도상우상지다.

飫, 饜足也. 蓺, 種也. 腥羶, 鳥獸之肉.

어, 염족야. 예, 종야. 성전, 조수지육.

윗절은 소채가 천하의 정미로서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에 족하고 또 입에 알맞기 때문에 달리 비린내 나는 고기반찬을 구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곧, 성교는 고금의 바른 正道로서 족히 죄를 없애고 영혼을 구제하나니, 망녕되이 다른 신과 많은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어(飫)는 싫도록 먹는 것이며, 예(蓺)는 심는 것이며, 성전(腥羶)은 짐승의 고기이다.

## 제 44 장 짐승

1 騰祥毓瑞	등상육서	상서로운 기운 높아
2 鳳翥麟遊	봉저린오	봉황 날고 기린 놀며
3 驩騶馳騁	화류치빙	화류 준마 내달리고
4 鸞鶴翔翱	난학상고	난새와 학 비상하네
5 鷄埒豚柵	계시돈책	동지의 닭 울안 돼지
6 鴻渚鵠巢	홍저작소	물가 오리 새집 까치
7 饑飢敷豫	수이부예	각기 먹이 넉넉한데
8 詎亟烹庖	거극팽포	어찌 양식 걱정하나

右節，鳥獸之微，上主猶備餌以養其生，  
우절, 조수지미, 상주유비이이양기생,  
人何憂衣食之不足，而徒烹庖之爲亟哉。  
인하우의식지부족, 이도팽포지위극재.

翥，飛也。遊，遊也。敷豫，足也。  
저, 비야. 오, 유야. 부예, 족야.

윗절은 미미한 새나 짐승이라도 상주께서 오히려 먹이를 갖추어서 그 목숨을 기르시거늘, 사람이 어찌하여 의식의 부족을 걱정하며 부질없이 부엌 끓일 것에 급급한가를 말한 것이다. 저(翥)는 날다라는 뜻, 오(遊)는 놀다의 뜻, 부예(敷豫)는 넉넉하다는 뜻이다.

## 제 45 장 물고기

1 鱗介蕃滋	인개번자	어류 조개 번식하니
2 譜題羸確	보제추확	계보따라 각양각색
3 龜鼈黿鼉	귀별원타	거북 남생 자라 악어
4 鯤鰲鯨鱣	곤오경악	곤어 거북 고래 악어
5 涿蝗掬蝦	쉬황국하	물속 누리 새우 잡고
6 泓雀撈蛤	수작로합	참새들은 조개 잡네
7 卵濕累莖	난습루자	물고기는 알을 까고
8 俄頃跳躍	아경도약	퍼덕이나 영혼 없네

右節, 鱗介之族雖多, 然中無靈魂, 其跳躍不過少頃耳.  
 우절, 인개지족수다, 연중무영혼, 기도약불과소경이.  
 可見人生甚爲貴重, 奈何竟等於鱗介, 而不思救其靈哉.  
 가견인생심위귀중, 내하경등어인개, 이불사구기영재.  
 蕃滋, 言衆多也. 涿泓, 沒水之貌. 蝗, 落水則化.  
 번자, 언중다야. 쉬수, 물수지모. 황, 락수즉화.  
 蝦又雀, 入大水爲蛤, 見禮月令. 俄頃, 少頃也.  
 하우작, 입대수위합, 견예월령. 아경, 소경야.

윗절은 물고기와 조개류는 비록 많으나 영혼이 없어 그 살아 뛰는 기간이 잠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생이 매우 귀중함을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물고기류와 같이 그 영혼을 구하려고 생각지 아니하였는가를 기록한다.

번자(蕃滋)는 무리가 많다는 뜻이며, 쉬수(涿泓)는 물에 빠지는 모양. 메뚜기가 물에 빠져 새우가 되고 참새가 큰물에 들어가 조개로 화한다는 것은 <예기> 월령편을 보라. 아경(俄頃)은 잠깐 사이이다.

## 제 46 장 벌레

1 蠶織蛛組	잠직주조	누에 거미 줄을 치고
2 蜩唱蟬吟	인창선음	지렁이와 매미 우네
3 徜徉邃閣	상양수각	벌레들은 깊은 곳에
4 紬繹閒庭	주역한정	구석에서 베 짜도다
5 拋擲獵蟻	포련엽의	고기가루 개미 사냥
6 搏飯鬪蠅	단반홍승	파리들은 밥덩이에
7 么麼瞬盼	요마순분	하루살이 사라지나
8 岡村淒辛	강부처신	영혼 처참 모르도다

右節, 么麼小蟲暫有生命, 所以絕無思慮, 不知有艱辛之事.

우절, 요마소충잠유생명, 소이절무사려, 부지유간신지사.

人則生命甚重, 失救甚苦, 其當如何信心, 而始得免淒楚也.

인즉생명심중, 실구심고, 기당여하신심, 이시득면처초야.

織也組, 亦織也. 擲, 肉屑也. 蟻, 攢肉屑有如獵然. 鬪, 鬪也.

직야조, 역직야. 련, 육설야. 의, 찬육설유여렵연. 흥, 뇨야.

麼, 渺小也. 村, 思也. 淒, 淒楚. 辛, 艱辛.

마, 묘소야. 부, 사야. 처, 처초. 신, 간신.

윗절은 작은 벌레들은 생명이 순식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려가 없고 또 쓰라린 일을 알지 못하나 사람의 생명은 심히 귀중하여 만약 구원을 잃는다면 그 괴로움이 어떠하리오? 그러므로 깊이 믿어야만 비로소 처초함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조(組)도 또한 짜다의 뜻. 련(擲)은 고기 부스러기이다. 개미가 고기 부스러기를 떠메는 것이 마치 사냥하는 것과 같다. 흥(鬪)은 뇨(鬪)니 부산하고 시끄러운 것이며, 마(麼)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한다. 부(村)는 생각함이며, 처(淒)는 처초함, 신(辛)은 쓰리고 어렵다는 뜻이다.

## 제 47 장 죽음

1 黽勉肅雍	민면숙옹	정성 다해 공경하라
2 慌逢殤殂	황봉상조	죽음 앞에 다다르면
3 軀殼匪牢	구각비뢰	뼈와 살은 허약하니
4 箠慝酸楚	생특산초	죄 숨기면 괴롭다네
5 涕淚悚惶	체루송황	눈물 흘려 근심하며
6 頻挈伴侶	빈설반려	자주자주 친구 함께
7 旦肄旬誨	단이순추	매일매일 공부하며
8 警惕臭腐	경적취부	욕신 부패 경계하라

右節言，人當勤求於道，致敬盡禮，畏死亡之日近，而知肉體之牢，  
우절언, 인당근구어도, 치경진례, 외사망지일근, 이지육체지뢰,  
罪惡之未免，邀結同志，恐懼祈求，  
죄악지미면, 요결동지, 공구기구,  
蓋深惕臭腐之期，靈魂之失於救耳。  
개심척취부지기, 영혼지실어구이.

黽勉，勤求也。肅，誠敬。雍，和順。夭死曰，殤。壽死曰，殂。  
민면, 근구야. 숙, 성경. 옹, 화순. 요사알, 상. 수사알, 조.  
軀殼，肉身也。箠，小罪。慝，隱惡。悚惶，恐懼之貌。  
구각, 욕신야. 생, 소죄. 특, 은악. 송황, 공구지모.

윗절은 사람이 마땅히 道를 부지런히 구하여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禮를 다하여 정성되어  
공경하며 죽을 날이 가까워 옴을 두렵게 생각하고 욕신의 굴레 속에서 죄악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 동지들과 요결하며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기구하여라. 이는 대개 욕신이 썩  
는 날 영혼의 구원을 잃을까 깊이 염려함인 것이다.

민면(黽勉)은 부지런히 구함, 숙(肅)은 정성스럽게 공경함, 옹(雍)은 부드럽게 순종함이다. 일찍  
죽는 것을 상(殤)이라 하고, 오래 살다 죽는 것을 조(殂)라고 한다. 구각(軀殼)은 욕신이며, 생  
(箠)은 모르고 지은 작은 죄이다. 특(慝)은 악을 숨긴다는 뜻이다. 송황(悚惶)은 두려워하는 모  
습이다.

## 제 48 장 하느님

1 矧窺浩蕩	신규호탕	주님 모습 광대하고
2 喧奕無邊	훤혁무변	크신 음성 끝없어라
3 緝熙淵穆	집희연목	감춘 모습 우러르면
4 翹睇鈞顏	교제균안	덕화의 빛 심원하네
5 匍匐跣踣	포복선기	허리 굽혀 꿇어앉고
6 慙懟胥刪	참대서산	미움 원망 버리고서
7 偃僂蹶躅	구루축적	삼가하고 공경하면
8 冥頑徐悛	명완서전	어둔 마음 깨치리라

右節, 上主之德廣大無名, 上主之功光明可見, 人當沈思邈慮,  
 우절, 상주지덕광대무명, 상주지공광명가견, 인당침사막려,  
 若或見之, 則跪拜禱祝, 化其不善之心, 而敬謹恭順感受聖靈,  
 약혹견지, 즉궤배도축, 화기불선지심, 이경근공순감수성령,  
 自改其前日之冥頑矣.

자개기전일지명완의.

浩蕩, 廣大貌. 喧奕, 宣著盛大之貌. 緝熙, 光明也.

호탕, 광대모. 훤혁, 선저성대지모. 집희, 광명야.

淵穆, 深遠之意. 懟, 怨也. 刪, 除也. 偃僂, 鞠躬也. 蹶躅, 恭敬也.

연목, 심원지의. 대, 원야. 산, 제야. 구루, 국궁야. 축적, 공경야.

冥頑, 不靈者也. 悛, 改也.

명완, 불령자야. 전, 개야.

윗절은 상주의 덕이 광대하기가 이를 데 없고 상주의 공이 광명함을 볼 것이니, 사람은 마땅히 깊고 아득하게 생각하며 혹 상주의 덕과 공을 깨달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 착하지 못한 마음을 고치고 삼가 정성되어 공경하며 성령의 감응을 받아 그 전일의 명완함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쳐야 함을 말한 것이다.

호탕(浩蕩)은 광대한 모양, 훤혁(喧奕)은 널리 드러남이 성대한 모양이다. 집희(緝熙)는 광명한 것이고 연목(淵穆)은 뜻이 심원함이다. 대(懟)는 원한이며, 산(刪)은 제거하다의 뜻이다. 구루(偃僂)는 몸소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며, 축적(蹶躅)은 공경하고 삼가는 모양, 명완(冥頑)은 신령스럽지 못한 것이고, 전(悛)은 허물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 제 49 장 하느님 나라

1 策繫臣僚	책혈신료	신하들을 거느리신
2 禹湯堯舜	우탕요순	우탕요순 임금님들
3 箴規紳儒	잠규신유	선비들을 바로잡는
4 仲閔孔孟	중민공맹	중유 민손 공자 맹자
5 斟酌奢淳	짐작사순	방종 순박 헤아리고
6 雙甄標準	쌍견표준	사람 도리 분별하여
7 炎火怖燒	염화포소	영겁의 불 두려우니
8 撫膺敏壘	무응민간	정성 다해 간구하라.

右節言, 耶穌之道其教人, 致君澤民, 正心誠意,  
 우절언, 야소지도기교인, 치군택민, 정심성의,  
 人當斟酌於眞僞之途, 甄別其信徒之準, 以循當然之則,  
 인당짐작여진위지도, 견별기신도지준, 이순당연지즉,  
 而豈怖永火之無救, 始盡心以昭事上帝哉.

이기포영화지무구, 시진심이소사상제제.

策, 勉也. 繫, 領也. 浮華曰, 奢. 樸實曰, 淳. 甄, 別也. 膺, 心胸之間.

책, 면야. 혈, 령야. 부화왈, 사. 박실왈, 순. 견, 별야. 응, 심흉지간.

윗절은 그리스도의 교와 그 교인은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림에 바른 마음(正心)과 성의(誠意)를 다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마땅히 그 어느 道가 참되고 거짓된가를 헤아리고 생각할 것이며, 또 신도들이 지켜야 할 표준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으니, 신도로서 마땅히 이를 지킨다면 어찌 영겁의 불 속에서 구령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리오. 그러므로 온 정성을 다하여 상제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策)은 힘씀이며 혈(繫)은 거느리다는 뜻이다. 겉은 화려하나 실속없음을 사(奢)라 하고 순박하고 실질적인 것을 순(淳)이라 한다. 견(甄)은 뚜렷하게 구별함이고 응(膺)은 가슴을 말한다.